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고병원성 AI 대비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

정읍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AI 발생 저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환원이 처음 검출됐다. 또 경북 예천을 시작으로 8개 시·도, 16개 시·군의 농장에서 AI 환원이 검출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일 살수차 3대를 동원해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과 고부천을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한편 방역방제기 2대로 AI 취약 축종인 오리, 산란계 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또한 축협공동방제단과 함께 가금농가와 농가 진입로, 마을 입구 등을 소독하며 차량으로부터 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금 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출입인원·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예찰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일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 실시

고창군이 확대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를 위해 상가들을 직접 방문해 이를 알리고 일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기존 시행중이던 18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 21개 품목을 제한하며 비닐봉투 등의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가락대를 사용할 수 없다. 1회용 비닐봉투도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며, 체육 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의 혁명 도시 연대회의' 개최 "내년도 예산심의 대응 철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맞아 국제 컨퍼런스 열어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 5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회 세계의 혁명 도시 연대회의'를 열었다.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기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이학수 시장과 고경은 시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체 게바라의 친조카이자 작가인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는 정읍 황도현 전적 내 '불멸, 바람길'을 찾아 한화·참배하고 연대를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세계 혁명 도시 연대 선언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의 힘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서막을 열었던 의로운 전쟁"이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도시들과 함께 혁명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국제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는 박홍규 화백이 그동안 자신이 작업한 동학농민혁명 작품들을 통해 혁명의 전 과정을 설명했다. 박홍규 화백은 한국을 대표하는 농민 화가로 지난 20여 년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다양한 그림 작업을 수행해왔다.

본식 1부에서는 세 개의 혁명 도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정읍시를 대표해 원도연 원광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는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가 체 게바라의 일생을 조명하며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념사업의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 5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회 세계의 혁명 도시 연대회의'를 열었다.

사례를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는 요코시마 고지(삿포로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일본 홋카이도의 저항운동을 소개하며, 그 정신과 문화가 일본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브랜드 팀링(아일랜드 시립도서관 부관장)과 권익석 교수(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가 공동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의 사례를 발표했다. 권익석 교수는 외세의 침탈에 시달렸던 아일랜드의 역사와 저항운동을 소개하고, 현재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념사업의 현황을 역사, 지역공동체, 창조적 상상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티나 페로(뮐하우젠 농민전쟁박물관 연구원)가 독일농민전쟁 500주년과 뮐하우젠의 기념사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리우신위예(상

해 사범대학 교수)가 중국 대일항쟁과 대항쟁의 도시 '현안'이 가진 의미를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제1회 세계 혁명 도시 연대회의를 장기적으로 도시간 순회 개최 방식으로 전환하고 도시들 간의 연대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기념사업의 방향과 방식을 전환해 세계사적 혁명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참가자들은 6일 정읍시민들과 정읍의 주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며 기념사업의 경험과 방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주간업무보고회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등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사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대응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5일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부안군의회 제355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 부서에서는 2023년도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역할이 커졌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호적이

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관공코스 개발시 부안의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우미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발해 달라"며 "동절기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장 활동준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동절기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상수도 동과 방지, 제설장비 비축 등 사고예방에 노력해 달라"며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홀몸어르신, 장애인기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장애인 인권한마당' 열려

고창군이 세계 장애인의날(매년 12월 3일)을 맞아 지난 1~3일에 걸쳐 '2022년 장애인 인권한마당'을 열고 있다.

장애인 인권한마당은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획하고 직접 출연한 공연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장은혜씨와 그 가족의 인생사를 담은 영화 '니얼굴' 관람 후 출연진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휠체어 장애인으로 지구촌 곳곳을 여행하는 '전용선' 작가를 초청해 '자유로운 여행은 자립생활의 완성'을 외치는 작가의 용기 있는 여행의 기록을 직접 들어보기도 했다. 또 고창군 장애인직업 적응훈련 시

설 훈련생 20여명이 폐목재, 헌옷, 폐잡지를 활용하여 만든 공예 작품 등이 전시됐다.

특히, 고창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한 가요곡 독주 및 병창, 하모니카 연주, 민요, 고창농악 등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더디고 느리지만, 스스로도 낯설고 두렵지만, 같이 하는 동료들 믿고 최선을 다해 만든 무대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 마지막 날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천옥희) 주관으로 '코다(CODA)' '복지식당' 등 장애인 인권영화 5편을 동리시네마에서 상영하여 장애인의 시선과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쌔고을 떡 어울림 플랫폼' 떡 만들기 체험 '인기'

정읍시 '쌔고을 떡 어울림 플랫폼'이 떡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와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며, 유치원과 학교 등 각급 단체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쌔고을 떡 어울림 플랫폼'은 떡 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쌔고을시장 2분 입구(시가지동 75-39번지 일원) 3층 규모의 건물로 떡의 유래와 역사 등 떡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전시실과 다양한 종류의 떡을 직접 만들어 보고 먹어볼 수 있는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유치원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총 60여 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떡 만들기 프로그램은 지역의 떡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인절미와 바람떡, 절편 등 전통 떡에서부터 떡카롱, 떡케이크, 구움 찰떡 등 퓨전 떡까지 다양한 떡을 체험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 해설사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쌔고을시장 인근과 도시재생 사업지구를 돌아본 후 떡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투어 연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참여자들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떡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떡을 맛보거나 가져갈 수 있다.

체험 또는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떡 만들기 체험 신청과 대관 문의는 '쌔고을 떡 어울림 플랫폼(063-537-0025)'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겨울철 설해대책 본격 추진

부안군은 2022년 겨울철 대설·한파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겨울철 군민 안전을 위한 설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해 기상특보 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분야별 사전대비의 협업체제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상습결빙구간에 설치된 전기열선 및 자동 열수분사장치 △4개소 5.9km 및 제설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였고, 제설작업을 위한 인력 273명, 살포기 7대, 제설기 265대 등 △총 291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대설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 계량기 등 동파와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110개소를 점검하였고, 한파센터와 경로당 477개소를 사전 점검하여 군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